



부도덕과 이세벨의 기만에 대한 꿈의

©아세프 인터레이터, 2008년 8월 24일

건도 제목

1. **티쿤** - 미국 티쿤의 메시아니 공동체 및 리더십 컨퍼런스가 이번 주에 열리는데 쇄신과 재충전, 돌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2. **홍콩 콜투올** - 이번 주에 열리는 국제 전도 컨퍼런스에서 역사적 복음의 전진이 있도록.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이스라엘의 비전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도록.
3. **이스라엘의 사부울** - 이번 주 이스라엘의 메시아니 공동체들은 사부울 (오순절)을 기념합니다. MAI (이스라엘 메시아니 연합)가 후원하는 전국 단합 대회에 연합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꿈: 음녀의 잔을 마신다

최근 전 불쾌한 꿈을 꿉습니다. 교회 혹은 컨퍼런스 센터처럼 보이는 큰 건물이 보였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성도 (그리스도인 혹은 메시아니 유대인)였습니다. 사람들은 교황에서부터 저희 간사들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에서 모였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한 사람이 밀봉된 작은 플라스틱 컵 (기내용 컵과 비슷하나 훨씬 작음)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포장된 컵에는 한 입에 들이킬 수 있을 만큼의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액체는 부도덕의 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적 부도덕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욕정과 탐욕, 인기, 사람들에게 대한 영향력, 인맥, 조작을 통한 명예 축적, 또한 자신의 “사역”에 “만취”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적 간음”은 “기만”의 영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기만은 이렇게 작용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액체를 마시면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잘 생겨 보이는 것입니다. 미소를 지으면, 매력적이고 긍정적이고, 정력적이고 부티가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놀라울 정도로, 마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일종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 영은 사람들을 기만하여, 그들로 죄와 영적 간음에 눈이 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상황을 바로잡을 길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슬프게도 꿈에서 저는 이 모든 영적 간음에 함께하려 했고, 다른 이들과처럼 그 능력의 액체를 한 모금 마셔보려고 애썼습니다.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쯤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와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을지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당연하지요, 아버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영적 부도덕에 속할 수 있도록 제게 그 잔을 건네줄 사람을 찾아 계속해서 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하나 아버지께서는 계속 저를 찾으셨고, 제가 왜 자꾸 피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바로 그 때 제가 그 컵을 구하려 아버지를 피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만 당하였고 죄악에 빠져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속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속임수에서 벗어나라고 소리쳤습니다.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효과는 마치 폭발이나 지진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직접 대면하여 강력한 구원을 맛보았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 기만에 “빠져” 있었지만 스스로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컵을 배포하기 위해 계획하고 작업한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컵을 팔고 있었으며, 목적을 가지고 일을 벌인 것입니다. 저는 소리치며 그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를 거부했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꿈 속의 저희 아버지가 저를 속임수와 죄악에서 꺼내주고자 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상징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컵 속의 액체는 큰 음녀의 손에 있던 잔과 같은 것입니다. 계 17:2, 4 -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

저는 또한 그 음녀의 액체가 이세벨과 발람의 영과 같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계 2:14, 20**). 음녀와 이세벨은 동일한 영이며, 저는 그 악령이 제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계 2:20**).

저는 주님께 대한 경외심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달 내내 후두염과 기관지염으로 고생해 왔는데, 예수아께서 회개하기까지 이세벨의 종들을 침상에 던지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계 2:22**). 아이쿠.

주: 저를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덧붙입니다. 저는 부도덕이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꿈은 이 마지막 때에 기만의 영과 영적 간음, 음녀의 영이 (저를 포함한) 교회에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들에 대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계 2:23**).

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계 2:16 -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 18:4 -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기도: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저희 죄악을 회개하고 기만과 음란의 영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들이 지금 제게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